

## 치료방사선사 재교육 과정에 관한 설문 조사

성빈센트 병원, 분당 차병원<sup>†</sup>, 서울대학교 병원<sup>¶</sup>, 강남 성모병원\*  
이정우, 방동완<sup>†</sup>, 박진홍<sup>¶</sup>, 김희남\*

목적: 치료방사선사의 재교육 과정을 시행하기 전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대상 및 방법: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기타 지역 병원 방사선종양학과(치료방사선과)의 치료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서울, 경기 지역 17개 병원과 기타지역 2개 병원에서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에 응한 회원 수는 총 127명이고, 근무 연수, 지역, 주 업무 영역, 현재의 지식습득 형태 및 문제점, 취약 분야 등의 설문을 통해 현 임상 재교육 실태를 알아보았고, 재교육 과정 신설시 수강의사, 희망 강좌, 개설 시기, 빈도, 대상, 강사진, 수강료, 수강 특혜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 기본 방향 및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조사하였다.

결과: 회원들의 주 업무영역 50%이상이 외부치료실과 모의치료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여러 파트의 순환 근무를 통해 재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료 계획실등의 Dosimetry분야의 제한 배치로 인한 업무 전반의 지식 습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 지식 습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교육과정의 부재를 꼽았으며 재교육 과정 수강을 통한 혜택에 강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 수강시 인센티브 적용, 전문방사선사의 입지 구축과 더불어 자격인정 및 보수교육 점수인정 측면을 피력한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재교육 과정 필요성 인식에 따른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설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